조선

2025 1

(824)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8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중요 연설을 하시였다

24 ‖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30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3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였다

4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44 ‖ 새해 2025년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공연 진행

5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56 ‖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6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신형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 진행

소 식

62 ‖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으며

오늘의 조선

68 ‖ 온 나라에 차넘치는 백두산에로의 답사열기

72 ‖ 서북변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

76 ‖ 북방의 대야금기지

표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새해 2025년을 맞이한 평양의 밤 사진 리명국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리금주

2

36

60

62

6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겨오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리념과 원숙한 령도력은 국가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창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치며 이 땅의 한해한해를 혁혁한 성공과 승리의 봉우리로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하는것을 2025년도 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목표가 확고하고 실행력이 강하며 전진속도가 기세차다. 대외적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막아서든 우리 국가의 비약적상승발전을 절대로 멈춰세우거나 되돌려세울수 없다.

우리 당과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기에 올해 투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시련보다 강하고 도전보다 거세찬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전취한 2024년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시련보다 강하고 도전보다 거세찬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전취한 2024년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가장 정의롭고 존엄높은 륭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대표자이시며 주체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인 2025년에 당대회결정을 드팀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실속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2.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3.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

4.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5.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6.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7.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제2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이룩한 성과들과 그 과정에 발로된 결함들이 상세히 지적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분투와 변혁의 한해로 자리매김한 2024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올해의 주요성과들을 개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사수와 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강력한 자위국방건설에서 사변적인 성과들을 쟁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력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억제력의 실체를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과 현대성, 무시할수 없는 국제적지위를 세계앞에 똑똑히 시위한것을 비롯하여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우리의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부문이 거대한 활약을 보여준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압연강재는 127%, 유색금속은 106%, 질소비료는 103%, 전력은 101%, 석탄은 110%, 세멘트는 101%, 통나무는 104%, 수산물은 101%, 철도화물수송량은 108%, 천은 101%, 알곡은 107%로서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였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비롯한 정비보강대상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자립경제의 발전동력과 잠재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또다시

풍년을 안아오고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가 4월까지 전부 결속되여 농업생산의 물질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건설부문에서도 수도의 화성지구에 건축미학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발전된 1만세대의 살림집들을 또다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의 올해 살림집건설과제를 결속하였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방대한 큰물피해복구과제가 완수되여 농촌문화도시의 새 변혁상이 펼쳐짐으로써 지방건설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무진장한 자생자결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당원들과 청년들, 인민군군인들을 애국적인 실천투쟁에서 성장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과 국가부흥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결실들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아시아컵경기대회와 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련전련승을 기록하고 력기와 탁구, 권투, 태권도 등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확고히 쟁취한것도 올해 총화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책정하고 그 완벽한 첫 실체들을 떠올림으로써 전국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의욕과 자신심을 배가해준데 대하여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맞다드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당결정을 충실하게 관철함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인 한해를 줄기찬 분투와 애국헌신의 의의있는 창조적, 혁신적성과들로 가득채운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하는것을 2025년도 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의 장성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이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에로 또 한번 비약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구조용장비들과 구호물자비축 등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면서도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와 방법,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절실한 방법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 예견된 경제장성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기본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책정하고 추진해온 주요정책적

과업들을 더욱 완강하게 내밀어 다음해에는 보다 뚜렷한 성과들을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25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결론에서는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을 떠메고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수산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방도들이 명시되였다.

결론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로의 첫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결속하게 될 새 년도의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어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어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체육부문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조, 위력한 언론공세, 우승의 체육성과로 시대를 진감시키고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혁명적기세를 앙양시켜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 다음해 투쟁에서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력량은 근로단체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당 청년중시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우리 국가의 국제적지위를 제고하고 대외적진지를 공고히 다지는데서 이룩된 성과들과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쇠퇴되고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대외부문에서 당의 대외전략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결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 천명되였다.

대외사업부문이 국위선양,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주권적 권리수호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사상과 기술강군으로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억세게 키우며 특히 투철한 대적의식과 절대불변의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를 만장약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적들의 전쟁기도와 수행방식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전법연구를 심화시키고 작전지휘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과학적인 훈련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민방위부문의 전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데 대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다음해의 투쟁은 해당 부문과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기능과 활동성을 보다 배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더욱 분발하여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전당의 당일군들이 구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도 류례없이 극난한 형세는 지속될것이지만 건국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시대를 열어온 올해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 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주체적힘은 우리가 목적한바를 반드시 빛나는 성취에로 추동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보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두어깨우에 억척같이 걸머지고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2025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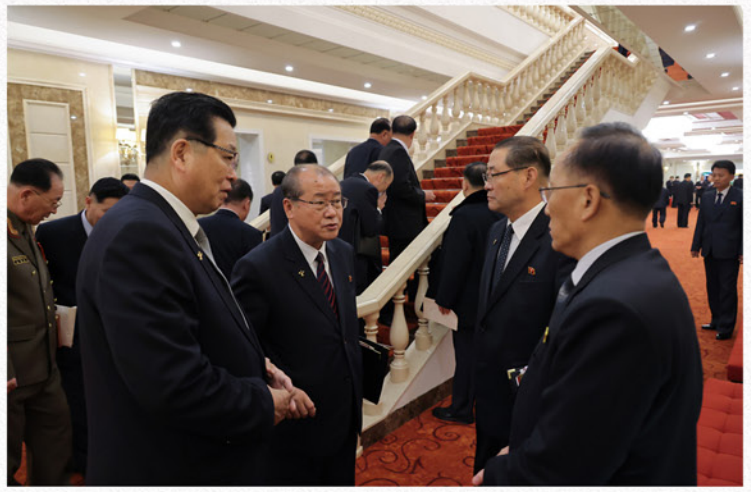
해당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당규률건설로선관철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언급되고 각급 당검사위원회들에서 발로된 편향적문제들이 엄정하게 지적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해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전국의 인민들에게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 창당이래,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시, 군들마다 몇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세우는것만으로는 지방에 남아있는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고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량곡관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로 한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3대필수대상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구체적인 건설방향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 상기 건설대상들을 정확히 실용성있게 완성하고 원만히 운영할수 있게 하여야 지방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수 있으며 시, 군들이 동시적으로 변모되고 부흥하는 활기찬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정식 포함시킬것을 전원회의에 제의하시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넷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진흥의 선차성과 필수성,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따라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이 강구되고있으며 교육자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이 일관하게 집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자부할만한 질적변화들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교육토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의 현 실태를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교육토대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적힘을 투하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하고도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건설을 목표한 이상 우리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기자재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 학습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에로 확고히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 상기의정을 특별히 상정시킨 의도와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교육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행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토대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개건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강하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다섯째 의정토의와 관련하여 전원회의는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의정토의에서 하신 말씀과 강령적인 결론들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2025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4차 정치국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5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 《나라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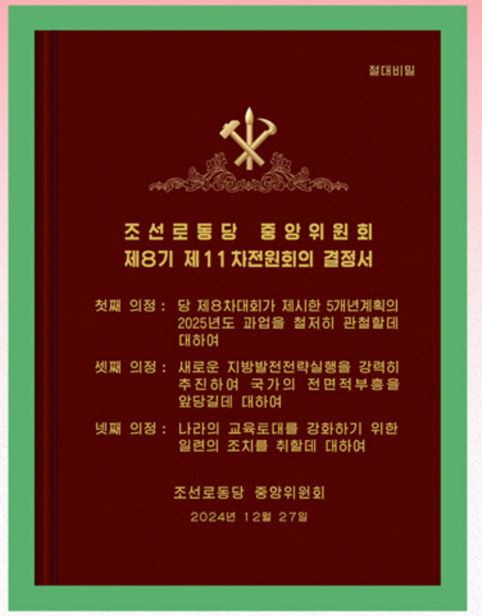
전원회의는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해는 우리 당이 창건 80돐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해인 동시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앞에, 인민앞에 총화짓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개척과 약진의 4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5년을 우리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기적적성과들을 쟁취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하게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4년 12월전원회의는 수천만 인민들의 크나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의 제1서렬, 제1전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직책상 임무에 끝까지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책임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절대비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서

첫째 의정 :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5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셋째 의정 :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

넷째 의정 : 나라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특별소식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사상과 원숙한 지도력에 의해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변혁적창조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속에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당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여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수십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에 특기할 10년창조대전의 고귀한 첫 실체들이 탄생한것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리상실현을 당과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혁명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거창한 격동의 년대가 눈앞의 현실로 도래하였음을 실증하는 고무적인 사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사상과 원숙한 지도력에 의해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변혁적창조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속에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당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여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수십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12월 2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력사적인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100년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더욱 확대심화시킬것이며 지방의 한가지라도 더 훌륭히 개변시키는데 더욱 과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부유한 삶을 누려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분투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각급 지방발전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평안남도와 성천군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의 지방공업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이 모든 지역의 인민생활과 나라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려는 의도에 배치되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 원인들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랭철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 군이 변하는 위대한 년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하며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훈과 전망을 더 중시하면서 전진의 보폭을 더 크고 정확하게 내짚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새년도 건설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력사적인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100년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더욱 확대심화시킬것이며 지방의 한가지라도 더 훌륭히 개변시키는데 더욱 과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부유한 삶을 누려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분투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이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오르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새시대 지방발전사에 긍지높은 첫 페지를 아로새기는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성천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불멸할 정치리념, 확고부동한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전국인민의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

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참가자들과 함께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름생산실, 간장, 된장생산실, 밥졸임생산실, 빵생산실, 음료생산실, 비누생산실, 목재가공작업반을 비롯한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시험적으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의 가지수와 질적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생산공정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기제품, 자기 지방고유의 특색이 살아나는 명상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군내주민들이 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활동과 질보장, 기능공양성 등 경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호상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배우며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풍을 조장확대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운영에서 기본은 생산정상화와 질제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월별로 강하게 총화대책하여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정책이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제품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울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해나갈데 대한 문제, 제품포장에서 편리성과 실리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활동과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방중흥의 첫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은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더욱 문명부강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당 제8차대회가 펼친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진군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비상히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특별소식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증시하며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선경마을들이 즐비하게 솟아올라 의의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12월 21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의 억센 신념을 지니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수해지역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훌륭하게 일떠세운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는 자기 당의 정치리념과 구상을 받들어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온갖 고생을 이겨내며 억척같이 투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미래가 비낀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지구들을 일떠세운 우리 군대의 장병들과 청년돌격대 대원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각지의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준공식은 국가의 근본이자 전부인 인민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도도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복구를 해놓고보니 이제 또다시 백년래의 큰물이 나도 이곳 압록강 하류지역은 끄떡없을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옛 모양을 찾아볼수 없게 개변된 섬들에 새 생활이 깃들게 되였다는 안도감에 기쁨을 금할수가 없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지어 비상방역기간에도 중요대상건설을 련속적으로 전개하고 실행해오면서 이번처럼 긴장하게 공사기일을 맞춘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계획수립에서 예단성이 부족한것을 비롯하여 건설과정에 일군들속에서 발로된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페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사실 이번 큰물피해복구를 시작할 때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우리에게 지원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우리가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처리방식에 일관할 결심을 피력한것은 우리자체의 힘에 대한 자신심과 함께 이 아름찬 공사를 통하여 더 자래우고 강하게 해야 할 자력의 정신물질적자산이 그 무엇보다 귀중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재가 자연의 변덕에 인한것만이 아니라 엄밀히 분석해보면 우리 국가 해당 재해방지기관들의 체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는 자기 당의 정치리념과 구상을 받들어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온갖 고생을 이겨내며 억척같이 투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미래가 비낀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지구들을 일떠세운 우리 군대의 장병들과 청년돌격대 대원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각지의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가 허술하고 여기에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경각성까지 합쳐져 막아내지 못한 인재였던것으로 하여 나는 스스로의 복구과정으로써 반드시 그 대가를 알고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앞으로의 위기대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남들의 도움을 기대하였더라면 이처럼 훌륭한 전변을 이룩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우리모두가 체감하는 귀중한 긍지도 없었을것입니다.

이번 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불의지변을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에서 세기적인 개벽을 이루어내는 사업이여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써만 승리를 성취할수 있는 투쟁이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청년들, 인민의 힘을 믿고 온 나라의 단합된 위력으로 기어이 피해복구를 제기일에 결속하여 그 어떤 국난도 자력으로 뚫고나가는 주체적힘을 더욱 키우려는 것이 당의 의도였습니다.

다시한번 자생자결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들어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 관한 우리 당과 정부의 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있고 지역인민들의 리상에도 부합되는 지역의 새 계획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련속적이며 립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이 지역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고자 우리 당이 내린 중대결정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 전망계획도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명년에 위화도와 다지도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최근 몇해어간에 동해지구의 중평과 련포 그리고 수도 평양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을 건설하여 온실남새생산의 경제적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이제 여기에까지 온실바다를 펼쳐놓게 되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짚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인민군부대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분담하여 치렬한 경쟁열속에서 우리의 창조력이 다시금 과시되게 하자고 합니다.

또한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연구 및 보급거점으로서 현대적인 남새과학연구소와 시험재배온실들도 일떠세우고 일부 살림집과

편의시설도 새로 건설하여 섬지구를 발전잠재력을 가진 새시대의 본보기농장으로 전변시키자고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압록강하류의 섬들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호안제방들을 더 든든히 보강하여 이 지역을 다시는 피해가 없게 완전히 요새화하며 새로 일떠선 주택구들에 정치문화생활거점과 봉사망과 같은 공공건물들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감들이 우리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이러한 건설사업은 나라의 국경관문도시들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키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인 공정으로 됩니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신의주시를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할수 있는 현대성과 독창성, 민족성이 구현된 발전적인 도시로 개변시킬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지역을 먼저 잘 꾸려놓고 신의주시까지 개변시켜놓으면 서북부의 지방도시가 정말 훌륭한 지역문화와 발전잠재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사업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이 뚜렷이 발현되는 사업으로서 현시기 이 부문에서의 성과는 그 정치성과 직관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위업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배가해주고 국가의 발전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정치적상징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사업의 전망적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대책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시대 건설혁명, 지방건설의 새 전기를 급진적이며 지속적인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위업을 실제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변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건설의 전문성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내세우고 강력하게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의 전문성을 높이자면 설계와 시공력량, 건설장비, 이 3대요소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국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순간의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끝까지 이끌어갈것임을 다시한번 굳게 확언하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건설에 진입하는 전체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돌격대원들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떨치고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당겨오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의 참전자, 직접적담당자라는 영예드높이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적실천으로 조국번영사의 또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새 살림집들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모든 가정들에 행복과 화목이 넘치기를 뜨겁게 기원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농촌문화주택구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년대계의 제방들이 안전지대를 이룬 속에 고층, 소층의 현대적인 도시형농촌살림집들이 장관을 펼친 신의주시 하단리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몇달전 고무단정을 타고 침수지역을 돌아볼 때에는 집을 잃고 고생할 인민들생각에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던 이곳이 볼수록 훌륭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였다고,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록강류역의 재해복구건설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국가고유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히였으며 지방중흥, 농촌진흥을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 발전공정을 경과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려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렇듯 훌륭하고 위대한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욱 분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구들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강대한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무궁한 번영이 있고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절대의 진리로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훌륭히 일떠섰다.

우리 당이 신포시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준공은 전국의 동시균형적발전을 위한 지방중흥의 세기적대업을 결단하고 완강히 실행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바다를 낀 모든 시, 군들의 미래의 변혁상을 보여주는 우리식 창조투쟁의 자랑찬 축도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훌륭히 일떠섰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12월 28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다섯달전만 해도 솔숲에 백사장뿐이였던 이곳에서 지방변혁의 특색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시각을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전국적판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진흥을 지향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가고있는 중대한 사업이 첫걸음을 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지방공업혁명이 실질적담보를 가지게 하자면 확실하고도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포시처럼 인구수가 많은데 비하여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시, 군일수록 지역의 자연부원과 경제지리적특성에서 유리한 점을 옳게 찾아쥐여야 하며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력으로 살아나가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됨으로 하여 우리가 얻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소득은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바다가양식에 신포사람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묘술을 과학으로 터득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식사업소의 기술자들과 종업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관, 병사들이 당정책을 굳게 믿고 비상한 각오와 불굴의 노력으로써 그 진리성, 정당성을 명명백백히 립증하였으며 인민군대의 해당 부문에서 새형의 양식모선을 건조, 기증하여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큰 몫을 맡아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일감을 찾았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그 결심에 호응해주며 성실하고 완강한 로력투쟁으로써 당정책이 정당함을 증명해주는 한결같은 성심을 대할 때 받아안는 긍지와 보람은 더욱 뿌듯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처럼 값있는 조국과 인민의

재부를 창조하여 당결정집행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신포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련관부문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루어놓은 사업들에 못지 않은 방대한 일감들, 보다 거창한 투쟁과업이 우리앞에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첫해 바다농사의 좋은 경험을 적극 살려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고 그를 위주로 하여 수산업의 구조를 개변시키는데서 계속 선구자적역할을 하며 기업관리를 깐지게 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리상과 우리의 용기, 우리의 분투와 창조는 기필코, 끊임없이 더 자랑스러운 재부들을 우리들자신앞에 가져다줄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시대에 신포시가 번창하고 말그대로의 《부자시》가 되여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라 의의깊은 12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과 함께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력대초유의 공력을 기울이는 지방진흥의 력사적 위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시, 군들이 지방경제를 확고한 발전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였다

웅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변혁과 문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찬 기상을 과시하며 나라의 동해명승으로 이름난 명사십리에 우리 식의 해안관광도시가 황홀하게 솟아오르고있다.

해양국의 자연지리적특성을 살려 경치좋은 해변가들에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휴양지를 꾸릴데 대한 구상을 밝히고 걸음걸음 이끌어준 당중앙의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갈마반도 명사십리에는 많은 호텔들과 려관,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봉사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이 일떠서 아름다운 경관을 펼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29일 준공한 여러 호텔과 봉사망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해의 맑고 깨끗한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해변가에 한폭의 그림마냥 황홀한 자태를 드러낸 해안관광도시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이곳 건설사업을 지도하면서 명사십리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의 십리해안으로,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리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주요봉사기지들은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들도 품위있게 주최할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사능력과 수준이자 관광지의 가치이고 그 전망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봉사업종들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적수준의 봉사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문제 등 봉사기지들의 정상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있으며 관광업발전에서 필수적인 정치적안정과 제도적우월성, 물질경제적조건이 다 구비되여있다고, 이처럼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나라의 경제장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광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의 효과성과 실리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관광지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기준들을 똑바로 규제하고 관광안내봉사와 관광시설운영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관광상품을 다양화하는것이 중요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주요봉사기지들은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들도 품위있게 주최할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관광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인 발전공정에 올려놓는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련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하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바다가정서가 깃든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찾는 조선의 명승,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갈마해안관광지구는 2025년 6월부터 운영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백두의 붉은기와 더불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위원회, 성 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백옥같은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진흥을 줄기차게 이룩함으로써 전면적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끝없이 빛내여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새해 2025년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공연 진행

특별소식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미증유의 전진을 이룩한 대변혁의 한해를 보내고 줄기찬 성공과 약진의 분수령으로 될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으며 신년경축공연이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우리 혁명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행정이였으며 건국이래 초유의 전면적진흥이라는 큰산을 조선혁명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딛고 넘은 2024년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무량한 감개와 우리의 리상과 위업의 진리성에 대한 크나큰 자부, 새해와 더불어 성취하게 될 새 승리, 새 문명에 대한 확신이 공연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공연에 앞서 빙상휘거선수들과 학생소년들이 전인민적인 송가 《친근한 어버이》에 맞추어 은반우에 랑만적이며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며 경축분위기를 돋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력사와 무궁한 미래, 불멸할 영광이 어려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성업을 눈부신 전진의 한길로 인도하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신심충천한 강국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지휘관들, 신년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수도시민들, 인민군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기악과 노래, 무용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로 시작된 제1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전인민적인 송가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로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신성한 리념과 숭고한 정신으로 인민의 세기적인 숙원을 새시대의 전설로 꽃피워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용진해온 2024년의 만단추억을 뜨겁게 되새겨주는 설화시 《오직 우리 당만이》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어머니 우리 당의 원대한 리상과 걸출한 령도력이 안아오는 눈부신 변혁의 시대상, 부흥창창할 조국의 장래를 끝없는 환희속에 그려보았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력사의 초행길을 굴함없이 걸으며 자기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해온 영예드높이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사회주의조선의 강대함을 억세게 떠받들어갈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강렬한 서정과 꾸밈없는 시어들로 형상한 가요 《우리는 조선사람》은 관람자들의 격정을 분출시켰다.

송년의 마지막 초읽기로 흥분을 머금던 장내는 2025년 1월 1일 0시 신년의 시작과 함께 터져오른 경축의 봉화,

장쾌한 축포로 격정과 환희의 절정을 이루었다.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새해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하신 령도자, 친근하신 어버이를 높이 모시고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참가자들의 크나큰 영광과 무한한 행복이 경축행사장에 감격의 대하로 굽이쳤다.

노래와 춤 《설눈아 내려라》로 시작된 제2부 공연무대에는 강국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 승화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감정을 진실하게 담은 새로운 명곡들이 련이어 올라 만장을 격동시키였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이기며 백승하여온 위대하고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 불갈은 맹약을 격조높이 구가한 가요들인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길이 사랑하리》에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공연을 장중하게 마감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아름다운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한 불보라를 펼치였다.

고귀한 추억과 승리자의 긍지속에 송년의 밤이 가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차넘치는 새해가 시작되였다.

새
해
20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1월 2일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향한 력사적인 투쟁행정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2024년의 거창한 변혁을 이루어내는데 공헌한 여러 부문의 로력혁신자들과 공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자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위대한 성과들과 자랑스러운 창조물들마다에는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주추가 되고 고임돌이 되여온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노력이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들의 힘찬 로력투쟁으로써 강국의 래일을 당겨오려는 강렬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참된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치며 줄기차게 전진비약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과업들을 완수하기 위한 증산투쟁, 애국투쟁의 전위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집단적혁신운동의 제일기수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국가의 명예를 높이 떨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 그들의 훌륭한 경기성과와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2일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2025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였다.

조국멀리 이역땅에 살아도 언제나 마음속에 가장 경건히 안고 사는 당중앙뜨락에서 오매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게 된 최상의 행복과 영예로 하여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기쁨에 넘쳐있는 예술단성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귀여운 학생들의 볼도 다독여주시며 어머니조국에서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에서 변심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넋을 이어 참되고 아름다운 성장의 나래를 펼쳐가는 총련의 금옥같은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열화같은 혈연의 정을 받아안은 행복동이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맑고 푸른 새해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예술단 단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총련애국위업의 바통을 이어나갈 역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하시였다.

꿈만같은 사랑이 넘쳐흐르고 보답의 열기로 달아오른 당중앙뜨락에 총련의 아들딸들이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절절히 불렀던 충효일심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졌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대를 피줄처럼 이어갈 지향으로 충만된 학생소년들의 노래를 기쁨속에 들어주시고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한량없는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총련의 미래를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는 애국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더 높은 단계에로 상승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환의 해 2025년의 서막을 의의있게 장식하며 재령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되였다.

서해곡창 재령나무리벌에 지방중흥의 희한한 전변상을 펼치며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된것은 지방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력사적 대업을 전개하고 인민들과 한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드팀없는 의지와 집행력에 대한 힘있는 립증으로, 줄기찬 전진과 기적적인 성공들을 예고하는 고무적인 대경사로 된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1월 7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는 새시대, 우리 국가의 거세찬 전진과 상승의 도약대를 마련해주시고 그 성스러운 변혁적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걸출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 주창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새시대 지방발전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페지를 아로새기는 력사적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을 담아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울려퍼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을 위해 고여온 진정이 열매를 맺어 성천군과 재령군을 비롯한 20개 시, 군에서 련이은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가지게 되는것은 새해의

보람찬 려정을 시작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온 나라의 경사라고 하시면서 오늘같이 지역인민들 모두가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혁명하고 투쟁해나가는 보람과 긍지도 더 커진다고, 인민을 위한 더 많은 일감들을 찾아 떠맡아할 결심이 더욱 굳세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범적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지방공장들의 운영과 제품생산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갈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지방공업의 전망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견인하고 강력히 지원해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 군의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 원료문제와 기능공양성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조건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무조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의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실리성과 효과성, 전망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방건설에서 또 한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은 우리 식의 발전관, 우리 식의 창조본때로 새로운 륭성번영의 활로를 열며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해 총분기해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 진행

평양시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싸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정점고도 99.8㎞, 2차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 500㎞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월 6일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하시였다.

신형극초음속미싸일의 발동기동체제작에는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되였으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새로운 무기체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시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현시기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싸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고있다는것을 의심할바없이 증명하였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것이다.

신형극초음속미싸일개발의 기본목적은 모든 군사강국들의 지향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 즉 누구도 대응할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데 있다.

이것은 공격적인 구상과 행동인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체방위를 위한 구상과 노력이다.

오늘의 시험결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예상한 전투적성능을 완벽하게 갖춘 미싸일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되였다.

우리의 최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미싸일체계의 성능은 세계적판도에서 무시할수 없으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할수 있다.

이번 전략무기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전망적인 위협들에도 충분히 대처할수 있는 무진장한 자체국방기술력의 잠재성과 발전속도를 과시하였으며 자기의 합법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있고 또 임의의 수단도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여있음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극초음속미싸일체계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태평양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기술력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이다.

신형전략무기체계의 성공적개발에 기여한 모든 연구사들과 기술자, 군수공업기업소의 로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군사강국을 목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력의 발전흐름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다.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각계층 근로자들과 외국의 벗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학생소년들의 2025년 설맞이공연이 진행되였다.

온 나라 인민이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새해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 그대로 비껴 온 나라가 희열과 랑만으로 끓어번졌다.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여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 등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각지 급양봉사망들도 이채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이였다.

승리거리, 천리마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과 각지에 새해를 맞으며 특색있는 불장식들이 펼쳐지고 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 가족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이 사회주의대가정의 밝은 래일을 그려주었다.

유서깊은 명당자리에 솟아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우뚝 솟아나 사회주의번화가,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빛을 뿌리고있는 전위거리, 림흥거리, 화성거리, 송화거리를 비롯한 각지의 곳곳에 펼쳐진 황홀한 야경이 명절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새해 2025년을 맞으며 국기게양식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가 진행되였다.

희망찬 새해 2025년을 맞으며 각지에서 이채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이고 곳곳에 펼쳐진 황홀한 야경이 명절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인민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온 나라에 차넘치는 백두산에로의 답사열기

민족의 넋이 깃들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는 답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2019년 겨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이후로는 한겨울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짓고 백두산으로 달려가고있다.

지금도 각계각층의 답사자들이 백두산밀영과 청봉, 건창, 삼지연, 대홍단 등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고있다.

매일같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행군과정에 그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고결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에 대하여 감명깊이 체득하고있다.

항일의 선렬들이 천고의 밀림에 남긴 구호문헌들과 유적유물들은 답사자들의 마음을 더욱 숭엄하게 하여주고있다.

생눈길도 헤치고 얼어든 손발을 모닥불가에서 녹이기도 하고 눈보라치는 밀림속에서 야외숙영도 하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지, 배짱을 새겨보는 그들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의지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고있다.

그 나날 답사대오들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과 문답식학습경연, 시랑송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들도 진행된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새겨안으며 행군을 이어가는 답사대오는 마침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다.

백두령봉의 메부리들과 천지의 모습을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바라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갈 맹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답사자들은 붉은기들을 휘날리며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터친다.

수많은 답사자들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철의 백두산에로의 답사과정이야말로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와 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매일, 매 시각 가슴깊이 새기게 한 과정이였다고 토로하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강수정

서북변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따라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미증유의 현실로 펼쳐가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빛내이며 조국의 서북변에 피해지역 인민들의 새 보금자리가 일떠섰다.

불과 넉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1만 5 000여세대의 현대적인 다층, 단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이 새로 건설되고 6 0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보수되였으며 압록강제방공사, 강하천정리, 철길, 도로, 다리복구가 힘있게 추진되여 나라의 서북부지역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개변되는 건설사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선경마을들에서 새집들이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배려물자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재민들이 받아안았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안은 새 살림집의 주인들,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자라날 새세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당과 국가의 혜택아래 더 큰 행복과 보람넘친 삶을 누려가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서

자강도에서

북방의 대야금기지

- 철강재증산으로 들끓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아서 -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투쟁에 총분기해나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다.

철강재증산의 뚜렷한 성과로 당을 받들어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과 창조본때로 올해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여러가지 규격과 종류의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려는 계속혁신의 기상이 기업소의 곳곳마다에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2023년 12월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 000㎥/h산소분리기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김철의 로동계급은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지난 시기에 비해 철강재생산능력을 훨씬 높임으로써 주체철생산체계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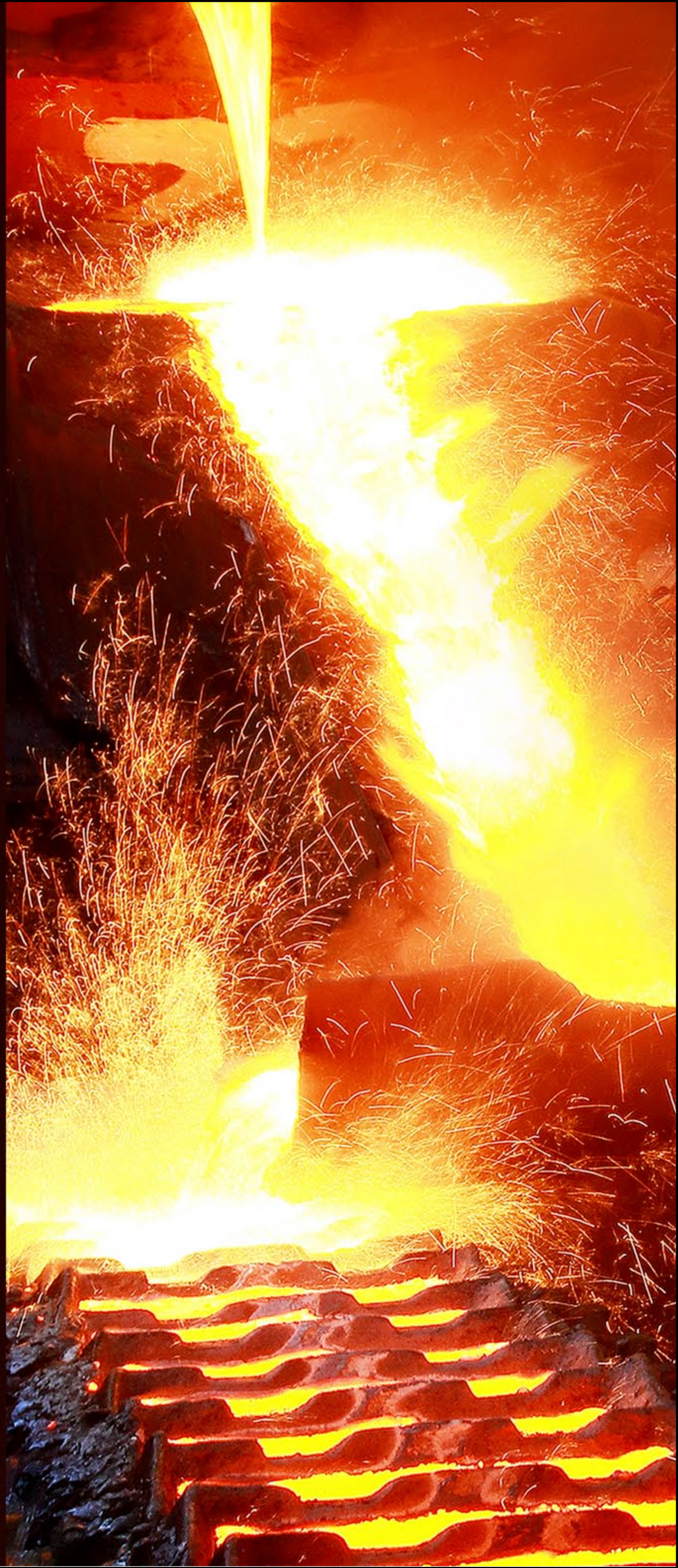
산소열법용광로직장에서는 설비들에 대한 점검과 로의 관리운영, 원료와 연료배합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출선주기를 줄임으로써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고있다.

강철2직장, 열간압연직장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여 여러 설비의 개조를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면서 철강재생산의 실수률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전반적인 공정들을 정비보강한 송평관수송사업소, 내화물직장 등에서도 원료, 연료, 내화물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철강재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장거리정광수송관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는것과 함께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사진 리철진, 황정혁
글 박병훈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naenara.com.kp www.minzu.rep.kp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iyctc.com.kp www.korart.sca.kp www.mirae.aca.kp www.korfilm.com.kp www.cooks.org.kp
www.korelcfund.org.kp www.tourismdprk.gov.kp www.ma.gov.kp www.sdprk.org.kp www.fia.law.kp www.manmulsang.com.kp www.koredufund.org.kp www.korstamp.com.kp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ryomyong.edu.kp www.knic.com.kp

ㄱ-25088025941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